

# 72홀 노보기 우승... '넘사벽' 고진영



LPGA 캐나다 퍼시픽 오픈  
26언더파 우승 ... 시즌 4승

아이언샷 적중률 90%  
페어웨이 안착률 80%  
106홀 연속 무보기 '무결점'

개인 타이틀 1위 굳히기 가속  
8개 대회 남아 추가 우승 관심

"흠집을 데 없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의 나무랄 데 없는 플레이에 외신들이 보낸 찬사다.  
고진영은 26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마그나 골프클럽(파72·670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금 225만달러)에서 '72홀 노보기(No Bogy)' 우승을 차지했다.  
나흘 동안 버디 26개로 26언더파 262타를 치며 2위 니콜 라르센(덴마크)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대회 기간 내내 한 번도 타수를 잃지 않은 고진영의 정확한 샷과 퍼팅에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무결점 경기를 했다'(flawless performance)고 극찬했다.  
72홀 노보기 우승은 2015년 박인비(31)가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처음 나온 진기록이다.  
그뿐 아니라 고진영은 8월 메이저대회인 AIG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3라운드 2번 홀에서 보기를 친 이후 CP 여자오픈까지 LPGA 투어에서 106홀 연속으로 노보기 행진을 벌이고 있다.  
박인비는 보기 없는 우승을 달성한 2015년 메이저 2승을 포함해 시즌 5승을 거뒀다.

LPGA 투어 한국선수 우승 일지  
2019년 기준 ※우승 날짜는 한국 시간

지은희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1.21)
양희영	혼다 LPGA 타이랜드(2.24)
박성현	HSBC 월드 챔피언십(3.3) NW 아칸소 챔피언십(7.1) <b>2승</b>
이민지	LA 오픈(4.29)
김세영	메디힐 챔피언십(5.6) 마라톤 클래식(7.15) <b>2승</b>
이정은	US 여자오픈(6.2)
허미정	스코틀랜드오픈(8.12)
<b>고진영</b>	<b>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십(3.25)</b> ANA 인스퍼레이션(4.8) 에비앙 챔피언십(7.29) <b>CP 여자 오픈(8.26) 4승</b>

고진영 주요 기록(8.26 현재)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 1위  
올해의 선수 1위, 평균타수 1위



고진영도 2015년의 박인비 못지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CP 여자오픈 우승으로 고진영은 시즌 4승, 통산 6승을 달성했다. 시즌 4승 중 2승은 ANA 인스퍼레이션, 에비앙 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에서 올렸다.  
'컴퓨터 퍼트'로 이름을 날렸던 박인비처럼 고진영도 '인공지능(AI)' 같은 정확한 플레이로 2019시즌 LPGA 투어를 지배하고 있다.  
고진영은 올해 출전한 17개 LPGA 투어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0개 대회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낸 대회는 2월 혼다 LPGA 타이랜드로, 공동 29위를 차지했다.  
7월 이후로는 팀 경기인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 준우승,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브리티시 오픈 3위, CP 여자오픈 우승 등 톱3 박을 벗어난 적이 없다.  
각종 기록도 고진영의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준다.  
고진영은 평균타수, 그린 적중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CP 여자오픈에서도 80%에 달하는 페어웨이 안착률과 90%의 그린 적중률을 자랑했다. 그 결과 고진영은 올해 261만8631달러(31억7000만원)의 상금으로 상금왕 1위를 달리고 7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LPGA 투어는 아직 8개 대회를 더 남겨두고 있다. 고진영의 무결점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고진영이 1승을 더 추가하면 2015년 박인비와 리디아 고(뉴질랜드), 2016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을 이어 3년 만에 시즌 5승을 달성하게 된다.  
또 현재로서 수상이 유력한 올해의 선수까지 거머쥘다면 1979년 낸시 로페스, 1980년 베스 대니얼, 1995년 안니카 소렌스탐, 2015년 리디아 고를 이어 역대 5번째로 신인상을 받은 이듬해에 올해의 선수에 오른 선수가 된다.  
고진영은 2017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을 발판으로 2018년 LPGA 투어에 데뷔했고, 그해 ISPS 한타 호주여자오픈 우승 등으로 신인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5강 불씨 꺼졌어도 선발 실험 계속된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SK 등 4강팀 원정길 1승1무4패  
사실상 가을야구 물거품  
이번주 삼성·NC·롯데 6연전  
이민우 선발 출격...미래 구상 첫단추

■ KBO중간순위 (26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121	79	41	1	0.658	0.0
2	두산	119	72	47	0	0.605	6.5
3	키움	123	72	50	1	0.590	8.0
4	LG	119	65	53	1	0.551	13.0
5	NC	118	59	58	1	0.504	18.5
6	KT	121	59	60	2	0.496	19.5
7	KIA	119	50	67	2	0.427	27.5
8	삼성	116	48	67	1	0.417	28.5
9	롯데	119	43	73	3	0.371	34.0
10	한화	119	44	75	0	0.370	34.5

KIA 타이거즈가 성적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KIA는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SK 와이번스 등 4강팀과의 험난한 원정 6연전에서 1승 1무 4패의 성적을 안고 돌아왔다.  
두 외국인 투수 터너, 윌랜드가 등판했던 두 경기에서 각각 3-15와 0-6의 일방적인 패배가 기록됐고, 나머지 경기들은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특히 5-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5-5 무승부를 낚긴 22일 경기가 뼈아팠다.  
KIA의 아쉬운 패배가 쌓이면서 5강 싸움은 남의



이민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가을잔치'의 마지막 선인인 5위 NC 다이노스는 9경기 밖에 있다. 6위 KT위즈도 8경기 차가 됐다. 반대로 8위에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1경기 차에서 7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5강은 멀어졌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KIA는 27일 안방에서 삼성과 7위 싸움을 벌인 다. 이후 29일 창원으로 가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하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강 팀들을 상대했던 지난주보다는 한결 수월한

대진이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삼성은 1경기 차 밖에서 KIA를 압박하고 있고, NC는 KT에 1경기 차로 쫓기고 있는 만큼 5위 수성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와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는 롯데도 KIA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KIA는 올 시즌 롯데에 4승 6패로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다.  
시즌 첫 만남은 싸움이 3연패였다. 특히 SK에 9회 대역전극을 펼치며 2승 1무로 상승세를 예고한 시점에서 당한 스윘이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반대로 싸움이 3연승으로 앞선 패배를 겪었지만 전체 성적은 4승 6패다.  
현실적인 7위 수성 목표를 위해 승수를 쌓아야 하는 KIA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  
이민우가 미래 구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민우는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서 윤성환과 마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27경기 나온 이민우의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다.  
KIA는 올 시즌 두 외국인 투수의 '롤코스터 피칭' 속에 '4·5선발 오디션'을 이어왔다.  
고졸 투기 김기훈이 경험이라는 귀한 자산을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선발 자원이다.  
민었던 임기영과 홍건희의 부진 속에 부상 이력 있는 차명진도 풀타임을 장담할 수 없다. 기대했던 선발 자원 한승혁은 재활 실패로 끝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입대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도 KIA의 고민은 '4·5선발 꾸리기'가 될 만큼 남은 시즌 선발 자원 물색에 나서야 한다. 이민우에게는 선발로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KIA가 7위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마운드 구상까지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신인 드래프트 지역 연고 '0'

1·2라운드선 야수 박민·홍종표  
휘문고 오규석·북일고 유지성 등  
신인 11명 중 7명이 투수

진흥고 투수 김윤식 LG행 등  
광주·전남 출신 9명 프로 데뷔

'호랑이 군단'의 선배에 지역 연고 선수는 없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0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탑고 내야수 박민 등 10명의 선수를 선택했다.  
'야수 세대 교체'라는 고민에 따라 KIA는 장타력을 갖춘 박민에 이어 2라운드에서 수비 범위가 넓은 강릉고 내야수 홍종표를 지명했지만 올해도 투수 강세였다.  
1·2라운드에서 야수 유망주를 선택한 KIA는 이후 오규석(휘문고·우투), 유지성(북일고·좌투), 김양수(북일고·사이드암), 장재혁(경남고·우투) 등 투수를 연달아 선발했다. 이어 7라운드백현중(경주고·동강대·포수), 8라운드 강민수(장충고·사이드암), 9라운드 이인한(강릉고·영동대·외야수), 10라운드 최홍준(부산공고·우투) 등 총 10명을 지명했다.  
우선 지명으로 선발한 광주일고 정해영을 포함 전체 신인 11명 중 7자리를 투수로 채웠다.  
KIA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신인드래프트(1차 지명 포함)에서 전체 55명 중 35명을 투수로 선발했다. 이어 내야수 9명, 외야수 8명, 포수

3명이었다.  
투수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온 KIA는 올 시즌 등지한 '젊은 마운드'를 구성했지만, 반대로 야수진의 노쇠화와 포지션 중복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야수진 강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자 아쉬운 점은 '지역 연고 선수 0'이라는 점이다.  
KIA가 호명된 10명의 선수 중 지역 프로팀을 보면서 야구 꿈을 키운 유망주는 단 한 명도 없다. 7라운드에서 이름이 불린 포수 백현중이 동강대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강릉고 출신이다.  
KIA가 지역 연고 선수를 호명하지 않았지만, 지역을 떠나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선수는 전체 10명 중 9명에 이른다.  
진흥고 투수 김윤식이 1라운드에서 LG의 선택을 받았고, 광주일고 외야수 박시원은 NC의 2라운드 선수가 됐다. 진흥고를 거쳐 단국대로 진학한 내야수 천성호도 2라운드에서 KT의 호명을 받았다.  
동국대 졸업을 앞둔 광주일고 출신 외야수 최지훈은 SK 3라운드 선수로 프로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광주일고의 내야수 정도웅(4라운드)과 포수 한지용(8라운드)은 나란히 롯데 유니폼을 입으면서 다시 한술밥을 먹게 됐다.  
진흥고 투수 김성민(두산·7라운드)과 동성고 투수 김동은(키움·8라운드), 화순고 외야수 박동혁(키움·9라운드)도 광주·전남을 떠나 타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결국 연고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우선 지명 선수 정해영만 유일한 지역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